

# 현대 중국어 선택의문형 반어문의 의미 연구\*

양영매\*\*

## 目 录

1. 서론
2. 선택의문형 반어문의 인식 조건
3. 선택의문형 반어문의 의미 구조
4. 선택의문형 반어문의 의미 형성 조건
5. 결론

## 1. 서론

현대 중국어에서 의문문은 의문을 제기하는 문장을 가리키며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에 따라 주로 의문사의문문, 판단의문문, 긍부정의문문, 선택의문문으로 구분된다.<sup>1)</sup> 이 중 선택의문문은 선택해야 하는 두 가지 이상의 가능성을 ‘...(是)…還是…’의 형식으로 연결하여, 대답하는 사람이 그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의문문의 한 종류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sup>2)</sup>

- (1) 好啦，我們去喝酒吧。對了，你請還是我請?  
(됐어, 우리 술 먹으러 가자. 참, 네가 사는 거니 아니면 내가 사는 거니?)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B5A07042601)

\*\* 韓國外國語大學校 教育大學院 講師

1) 현대 중국어법에서는 각각 特指疑問句, 是非疑問句, 正反疑問句, 選擇疑問句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 예문은 北京大學 中國語言學研究中心의 말뭉치인 CCL에서 선별한 것임.

- (2) 李尋歡目光閃動, 笑問道:“喝茶? 還是喝酒?”  
(李尋歡은 눈빛을 반짝이며 웃으면서 물었다. “차를 마실 건가요? 아니면 술을 마실 건가요?”)

예문(1-2)은 모두 전형적인 선택의문문이다. 그중 예문(1)은 술을 마시러 가는데 누가 돈을 낼 것인지에 대해 청자가 사는 것을 뜻하는 ‘你請’과 화자가 사는 것을 뜻하는 ‘我請’이라는 두 선택항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청자에게 묻는 말이다. 예문(2)에서도 선택의문문 ‘喝茶? 還是喝酒?’는 차를 마실 것인지 아니면 술을 마실 것인지에 대해 ‘喝茶’와 ‘喝酒’라는 두 선택항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지를 청자에게 묻는 말이다. 이처럼 선택의문문은 A, B 두 선택항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에 대해 묻는 의문문의 한 종류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의문문이 의문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3) 娘子, 你撒手我! 你是攆我, 還是揪我呢?  
(색시, 나 좀 놔줘요! 당신 나를 부축하는 거요? 아니면 나를 잡아 뜯는 거요?)
- (4) 嗯, 你老護着你的嫂子。他們是你哥哥的朋友。你嫂子養活着你呢? 還是你哥哥養活着你呢? 我問你!  
(음, 너 늘 네 형수를 감싸더라. 저 사람들은 네 형의 친구들이야. 네 형수가 너를 먹여 살리고 있니? 아니면 네 형이 너를 먹여 살리고 있니? 내가 너에게 묻고 있잖아!)

예문(3-4)를 보면 모두 두 항목 사이에 선택의문문의 표지인 ‘…(是)…還是…’를 두어 표면상 모두 선택의문문 형식을 취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살펴보면 예문(3)은 부축하는 행위와 잡아 뜯는 행위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뜻이 아니라, 색시가 나를 부축한다는 것이 도리어 나를 잡아 뜯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뜻으로, 전자를 부정하고 후자를 긍정한 문장이다. 마찬가지로 예문(4)도 청자를 먹여 살리는 사람은 형이지 형수가 아니므로 형수를 감싸줄 필요 없다는 뜻이다. 즉, 이 문장은 청자를 먹여 살리는 사람이 형수인지 아

니면 형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뜻이 아니라 전자를 부정하고 후자를 긍정하는 뜻을 나타낸다. 현대 중국어에는 예문(3-4)처럼 비록 선택의문문 형식을 취하지만, 의문을 나타내지 않고 주로 부정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문장을 선택의문형 반어문이라고 부른다.

선택의문문은 A, B 두 선택항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의문문이므로, 설령 선택의문문 형식을 취하는 반어문이라 할지라도 예문(3-4)처럼 A, B 두 선택항 중에서 하나를 부정하는 것이 정상이나, 일부 선택의문형 반어문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5) 爲了賺錢, 這些年我是買衣服了, 還是買化粧品了?

(돈을 벌기 위해, 요 몇 년 동안 제가 옷을 샀나요? 아니면 화장품을 샀나요?)

예문(5)는 돈을 벌기 위해 요 몇 년 동안 나는 옷도 사지 않았고 화장품도 사지 않았다는 뜻으로, A와 B 두 선택항을 모두 부정한다. 이는 A, B 두 선택항 중에서 하나를 부정하는 예문(3-4)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는 선택의문형 반어문에서 선택의문문 표지 ‘還是’는 선택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는 선택의문형 반어문이 나타내는 부정 의미는 기타 반어문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학자들의 관심은 일반 반어문과 의문사의문문 형식의 반어문에 집중되어 있었고 선택의문형 반어문에 대해 연구한 논문은 단지 몇 편에 불과하다. 劉月華等([2001]2003)은 선택의문형 반어문의 의미에 대해 연구했고, 王菊平(2007), 于天擘(2007), 張曉濤(2011)는 학위논문을 통해 반어문을 연구하면서 반어문의 한 유형인 선택의문형 반어문에 대해서도 연구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주로 선택의문형 반어문의 통사적 특징 및 선택의문형 반어문의 부정 의미 연구에 집중되어 있었고 어떻게 선택의문형 반어문을 인식할 수 있는지, 선택의문형 반어문이 왜 선택항 A, B 중에서 하나를 부정하거나 모두를 부정할 수 있는지, 그 결정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고는 선택의문형 반어문에 대한 의미론적 접근을 통해 선택의문형 반어문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의미도식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그러나 선택의문형 반어문은 의문문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한 문장이 선택의문문인지 아니면 선택의문형 반어문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선 한 문장이 선택의문문이 아니라 선택의문형 반어문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선택의문형 반어문의 인식조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선택의문형 반어문의 인식 조건

먼저 다음 예문을 보도록 하자.

(6) 你給的錢是够買糧的, 還是够買菜的?

- a. (당신이 준 돈은 식량을 사기에 충분한가요 아니면 반찬을 사기에 충분한가요?)
- b. (당신이 준 돈은 식량을 사기에 충분한가요 아니면 반찬을 사기에 충분한가요? → 당신이 준 돈은 식량을 사기에도 부족하고 반찬을 사기에도 부족해요.)

예문(6)은 a와 같이 의문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b와 같이 반어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a와 같이 의문문으로 해석되는 것은 이 문장이 선택의문문의 표지인 ‘...(是)…還是…’의 형식을 취했기 때문이어서 문장 의미 파악에 별로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의문문 형식을 취한 이 문장이 b와 같이 의문을 나타내지 않고 전체 선택항을 부정하는 부정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문장 의미 해석에서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반어문으로 인식하기도 어렵다.

이에 여기에서는 邵敬敏(1994), 張曉濤 等(2011), 양영매(2014)의 연구를

바탕으로, 반어문 인식에 있어서 표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유표지형과 무표지형으로 나누어 선택의문형 반어문의 인식 조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 2.1 유표지형

유표지형이란 일부 선택의문형 반어문은 의문문이 아닌 반어문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지가 있다는 뜻이다. 유표지형 선택의문형 반어문을 다시 표지의 특성에 따라 직접 표지형과 간접 표지형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직접 표지형

현대 중국어에서 의문문이 의문을 나타내지 않고 반어문으로 쓰일 경우, 대부분 표지가 있는데, 그 표지로는 의문사 외에도 ‘不是…嗎?’, ‘難道…(嗎/不成)?’ 등과 같은 기타 표지가 있다. 그중 일부 반어문 표지는 선택의문형 반어문에도 출현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7) 這筆錢可不是小數目, 你不想交公, **難道你工作幹够了, 還是吃了豹子膽了?**  
 (이 돈은 그야말로 작은 액수가 아닌데, 당신이 공공기관에 넘기지 않으려고 하다니, 설마 당신 일에 질린 건가요 아니면 간덩이가 부은 건가요?)
- (8) 你整天和信打交道, 從未見過你自己接過信, **莫非你是天上掉下來的, 還是樹上生的?**  
 (당신은 하루 종일 편지와 씨름하는데 한 번도 당신이 자기 편지를 받는 걸 본적이 없네요. 혹시 당신 하늘에서 떨어진 건가요 아니면 나무 위에서 태어난 건가요?)

예문(7)은 선택의문형 반어문으로 청자가 상당한 금액의 돈을 공공기관에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일을 많이 해서 일에 질려서가 아니라 간덩이가 부어서라는 뜻을 나타내는데, 반어문 표지 ‘難道…’가 출현하여 이 문장이 의문문이 아니라 반어문임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예문(8)에서는 비록 선택항의

의미가 비현실적이어서 출생을 묻기에는 부적절하므로 두 개의 선택항을 모두 부정하는 반어문임을 직감할 수 있으나 반어문 표지 ‘莫非…’가 출현함으로써 이 문장이 반어문임을 더 확실하게 보여준다.

본고는 이와 같이 반어문 표지가 출현하는 선택의문형 반어문을 직접 표지형으로 분류했다. 본고의 고찰에 따르면 상당수의 선택의문형 반어문에 이런 반어문 표지가 출현한다. 그리고 직접 표지형은 반어문 표지가 출현하기 때문에 선택의문문의 형식을 취한 문장이 반어문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따라서 직접 표지형은 선택의문형 반어문 인식이 훨씬 용이하다.

## 2) 간접 표지형

간접 표지형은 비록 직접 표지형처럼 반어문 표지가 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후행절을 통해 문장이 반어문임을 인식할 수 있다. 먼저 선행절을 통해 반어문임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를 보자.

- (9) 他氣得把講臺猛地一拍, 衝着我怒吼起來: “羅世凱! 你要幹甚麼? **究竟是你講課, 還是我講課?**”

(그는 화가 나서 강의테이블을 세게 내려치면서 나를 향해 울부짖었다. ‘뉘 쓰카이, 너 뭐하는 거야? 도대체 내가 강의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강의하는 거야?’)

예문(9)에서 선택의문문 형식을 취한 문장 ‘究竟是你講課, 還是我講課?’에는 ‘難道…(嗎)?’와 같은 반어문 표지가 없다. 따라서 화자가 강의를 부탁했다가 취소하고 또다시 부탁하면서 번덕을 부리는 상황에서 화자가 이 문장을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청자의 번덕에 화가 난 화자가 청자에게 강의를 누가 하는 것인지 따져 묻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즉 선택의문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문(9)에서는 선행하는 문장 ‘你要幹甚麼?’가 출현했기 때문에 ‘강의는 내가 하는데 너 지금 뭐하는 것이냐’는 뜻을 나타내는 반어문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다. 邵敬敏(1994), 張曉濤 等(2011)은 예문(9)처럼

선택의문형 반어문에서 선행절의 출현으로 반어문임을 인식할 수 경우를 선행절이 반어문 형식을 취하는 경우만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의 고찰에 의하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0) 坐下來談談吧! 你們是要命呢? 還是要現大洋?  
 (앉아서 얘기하세요! 당신들은 목숨을 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은화를 원하는 건가요?)
- (3) 娘子, 你撒手我! 你是攙我, 還是揪我呢?<sup>3)</sup>  
 (색시, 나 좀 나줘요! 당신 나를 부축하는 거요? 아니면 나를 잡아 뜯는 거요?)

예문(10)은 선택의문형 의문문으로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원하는 것인데 서두를 필요 없이 앉아서 얘기하라는 뜻을 나타내는데 만일 선행절 ‘坐下來談談吧!’이 없다면 이 문장을 돈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목숨을 원하는 것인지를 묻는 선택의문문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예문(3)도 마찬가지로 경우이다. 이 문장은 부축한다는 것이 잡아 뜯는 듯이 아프므로 색시에게 봐주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는 선택의문형 반어문이다. 이 문장에서 확실한 태도를 표시하는 선행절 ‘娘子, 你撒手我!’의 출현은 선택의문형 반어문의 인식을 더욱 용이하게 했다. 이처럼 선택의문형 반어문에서 선행절이 반어문이 아닌 서술문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으로 후행절을 통해 반어문임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를 보도록 하자.

- (11) 你是說了一聲“對不起”, 還是說了聲“包涵”哪? 這就算賠不是了啊?  
 (자네 ‘미안하다’고 한마디 했나 아니면 ‘용서해주세요’라고 한마디 했나? 이걸로 사과한 셈 치려고?)
- (12) 他們是不喜歡你腿癢呢, 還是批評你常常到醫院去, 聘誤了工作呢?  
 沒有! 他們並沒有嘲笑你腿癢, 也沒批評你老住醫院。  
 (그들은 당신이 다리를 전다고 꺼려했나요 아니면 당신이 자주 병원에 가는

3) 논의를 편의를 위해 앞에서 제시한 예문을 다시 제시할 경우, 예문 번호는 원래의 예문 번호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하 동일.

라 일을 지체한다고 야단쳤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결코 당신이 다리를 전  
다고 비웃지도 않았고 당신이 자주 병원에 입원한다고 야단치지도 않았어  
요.)

예문(11)은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지도 않았고 ‘용서해주세요’라고 한마디  
하지도 않았다는 뜻을 나타내는 선택의문형 반어문이다. 만일 반어문 형식의  
후행절 ‘這就算賠不是了啊?’가 없다면 ‘미안하다’고 한마디 말했는지 아니면  
‘용서해주세요’라고 한마디 말했는지를 묻는 의문문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반면, 예문(12)는 후행절이 ‘沒有! 他們並沒有嘲笑你腿癱, 也沒批評你老住醫  
院.’이라는 서술문으로 이루어져서 이 문장이 선택의문문이 아니라 선택의  
문형 반어문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간접 표지형에서 간접 표  
지가 후행절일 경우 그 후행절은 반어문 형식을 취할 수도 있고 서술문일 수  
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절에서 고찰한 바를 종합해 보면 선택의문형 반어문임을 인식할 수 있  
는 표지가 있는 경우, 반어문 표지가 출현하는 직접 표지형이 있는가 하면 표  
지는 있는데 직접적인 반어문 표지가 출현하지 않고 선·후행절을 통해 선택  
의문임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간접 표지형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간접 표지형의 경우 그 표지가 선행절에 출현하든, 후행절에 출현하든  
모두 화자의 태도를 표시하는 경우이며 반어문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서술문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2 무표지형

앞에서 제시한 예문(6)을 다시 보자.

- (6) 你給的錢是够買糧的, 還是够買菜的?  
a. (당신이 준 돈은 식량을 사기에 충분한가요 아니면 반찬을 사기에 충분한가  
요?)

- b. (당신이 준 돈은 식량을 사기에 충분한가요 아니면 반찬을 사기에 충분한가요? → 당신이 준 돈은 식량을 사기에 부족하고 반찬을 사기에 부족해요.)

앞에서 예문(6)은 a처럼 의문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b와 같이 반어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만일 예문(6)처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반어문임을 인식할 수 있는 표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문(6)을 b처럼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화자가 청자에게 불만을 얘기한다는 상황이 갖추어져야만 가능하다. 이처럼 선택의문형 반어문을 인식함에 있어서 특별한 표지가 없이 상황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는데 본고는 이와 같은 경우를 무표지형으로 분류한다. 다음 예문을 더 보도록 하자.

- (13) 國難期間，年輕輕的不知作些有益處的事，一天到晚亂跑亂說，是對得起國家，還是對得起自己？

(국난기간인데 젊디젊은 사람이 좀 유익한 일을 할 줄은 모르고 하루 종일 마구 쏘다니고 마구 떠들다니, 국가에 떳떳한가 아니면 자신에게 떳떳한가?)

예문(13) 같은 경우, 예문(6)과 달리 일정한 상황이 갖추어지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사회도덕기준에 의해 이 문장이 선택의문형 반어문임을 인식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국난기간에는 모든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유익한 일을 해야 하며 특히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 그러해야 함은 일반적인 인간의 도리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유익한 일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마구 쏘다니고 마구 떠드는 행위는 나라와 자신에게 모두 미안한 일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예문(13)을 선택의문형 반어문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예문(6)과 예문(13)처럼 무표지형일 경우 상황이나 사회적 도덕기준에 의존하여 선택의문형 반어문임을 인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상식만 갖추어도 선택의문형 반어문임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8) 你整天和信打交道, 從未見過你自己接過信, 莫非你是天上掉下來的, 還是樹上生的?  
 (당신은 하루 종일 편지와 씨름하는데 한 번도 당신이 자기 편지를 받는 걸 본적이 없네요. 혹시 당신 하늘에서 떨어진 건가요 아니면 나무 위에서 태어난 건가요?)
- (14) 你這是穿的, 還是啃的?  
 (당신 그건 입는 것이예요 아니면 물어뜯는 것이예요?)
- (15) 究竟是官僚主義、命令主義好, 還是依靠群眾、說服群眾好?  
 (도대체 관료주의, 명령주의가 좋은가요 아니면 군중에 의지하고 군중을 설득하는 것이 좋은가요?)

예문(8)은 청자의 출생지를 묻는 것으로 편지를 한 번도 못 받았을 정도로 인간관계가 너무 협소한 청자를 화자가 신기해함을 나타내는 선택의문형 반어문이다. 이 문장에서 선택항 ‘하늘에서 떨어지다’와 ‘나무 위에서 자라다’는 사람의 출생지로는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은 주지하는 상식이다. 또한, 예문(14)는 청자가 들고 있는 것이 옷인지 물어뜯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사용하는 말이다. 비록 표지가 없지만 이 문장을 반어문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입는 옷과 개뼈다귀같이 물어뜯는 것을 구분 못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예문(15)도 마찬가지로 이 문장이 관료주의와 명령주의가 좋은 것이 아니라 군중에 의지하고 군중을 설득하는 것이 좋은 것이므로 군중에 의지하고 군중을 설득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관료주의, 명령주의가 나쁘다는 것은 일반 상식이기 때문이다. 예문(8)과 예문(14-15)를 통해 비록 문장 속에 반어문 표지가 없지만, 상식을 벗어나는 선택항을 제시함으로써 선택항을 부정하여 제시한 문장이 선택의문문이 아니라 선택의문형 반어문임을 인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절에서 고찰한 바를 종합해보면 무표지형의 경우 한 문장을 선택의문형 반어문으로 인식하는 조건에는 상황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적 도덕기준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으며 상식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선택의문형 반어문의 의미 구조

반어문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해보면 반어문의 의미에 대해 ‘부정 의미’를 나타낸다는 견해와 ‘강조 의미’를 나타낸다는 견해가 양대 산맥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부정 의미’를 나타낸다고 주장한 이로는 呂叔湘([1942]1982)이 대표적이다. 그는 “반어문은 진정으로 일종의 부정의 방식”<sup>4)</sup>이라고 했다. 반면, 劉月華等([2001]2003:503)은 반어문은 상응하는 서술문에 비해 감정색채가 더욱 강하다면서 ‘강조’의 측면에서 반어문의 의미를 해석했다. 그러나 郭繼懋(1997)는 반어문을 단순히 진술에 대한 ‘강조’로만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했다. 본고는 선택의문형 반어문은 나타내는 의미가 복잡하여, 선택의문형 반어문의 의미를 ‘부정 의미’나 ‘강조 의미’ 중 하나로 단정 짓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는 판단 하에, 제바스티안 뢰브너(Sebastian Löbner, 2002)의 의미론 층위에 관한 이론<sup>5)</sup>에 근거하여 선택의문형 반어문의 의미를 표현 의미, 발화 의미, 의사소통적 의미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sup>6)</sup>

#### 3.1 선택의문형 반어문의 표현 의미

제바스티안 뢰브너(Sebastian Löbner, 2002)는 ‘표현 의미’를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 자체로 간주되는, 즉 특정한 문맥 안에서 간주되지 않는 낱말, 구,

4) 呂叔湘([1942]1982:294) 참조.

5) 제바스티안 뢰브너(Sebastian Löbner, 2002)는 의미는 표현 의미, 발화 의미, 의사소통적 의미의 세 가지 층위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표현 의미는 “고립적으로 다루어지는 단순하거나 복합적인 표현의 의미”를 가리키는 말이고, 발화 의미는 “어떤 표현이 주어진 발화 문맥에서 사용될 때 가지는 의미”를 가리키는 말이며, 의사소통적 의미는 “주어진 사회적 배경에서 의사소통적 행위로서 발화의 의미”를 가리킨다. 또한 그는 “의사소통적 의미는 발화 의미에 의지하고, 발화 의미는 표현 의미에 의지한다.”고 주장한다. 임지룡·김동환 역(2010:4-17) 참조.

6) 본장의 내용 중 발화 의미와 의사소통적 의미 부분은 심사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수정하였음을 밝히며, 이 자리를 빌려 익명의 심사위원님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문장의 의미”<sup>7)</sup>라고 정의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선택의문형 반어문의 표현 의미를 ‘부정’으로 상징한다. 왜냐하면 예문(1-14)를 보면 선택의문형 반어문이 선택의문문이라는 형식을 취하면서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바로 ‘부정’이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 이미 밝혀졌듯이 선택의문형 반어문은 전체 부정과 부분 부정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부분 부정은 선행절 부정과 후행절 부정을 나타낼 수 있다. 우선 전체 부정의 경우를 보도록 하자.

#### 1) 전체 부정

선택의문형 반어문은 대부분 선택항이 두 개이고 가끔 그 이상인 경우도 있는데, 전체 부정을 나타낼 경우, 선택항의 개수와 무관하게 선택항 전체를 부정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5) 爲了賺錢, 這些年是我買衣服了, 還是買化粧品了?  
(돈을 벌기 위해, 요 몇 년 동안 제가 옷을 샀나요? 아니면 화장품을 샀나요?)
- (11) 你是說了一聲“對不起”, 還是說了聲“包涵”哪? 這就算賠不是了啊?  
(자네 ‘미안하다’고 한마디 했나 아니면 ‘용서해주세요’라고 한마디 했나? 이걸로 사과한 셈 치려고?)

예문(5)는 돈을 벌기 위해 요 몇 년 동안은 옷도 안 사고 화장품도 안 샀다는 뜻을 나타내는 선택의문형 반어문으로, 선택항인 ‘買衣服’과 ‘買化粧品’을 모두 부정하는 전체 부정에 해당한다. 예문(11)도 ‘미안하다’고도 하지 않았고 ‘용서해주세요’라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한 셈이 아니라는 뜻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선택항인 ‘說了一聲“對不起”’와 ‘說了“包涵”’ 모두 부정한다. 따라서 이 문장 역시 전체 부정을 나타낸다.

다음은 선택항이 두 개 이상인 경우를 보자.

7) 임지룡·김동환 역(2010:9) 참조.

- (16) 我跟你是親戚? 是老朋友? 還是我欠你的?  
 (저와 당신은 친척인가요? 오래된 친구인가요? 아니면 제가 당신에게 빚이라도 졌나요?)
- (17) 說甚麼? 她欺行霸市了? 危害四鄰了? 偷鷄摸狗了? 貪污盜竊了? 殺人放火了? 沒有!  
 (뭐라는 거예요? 그녀가 동업자들을 억압하고 시장을 독점하였어요? 주변에 손해를 끼쳤어요? 좀도둑질을 했어요? 횡령하고 절도행각을 벌였나요? 살인을 하고 방화를 했나요? 아니잖아요!)

예문(15-16)은 모두 전체 부정을 나타내는데, 다른 점은 예문(15)는 화자와 청자는 친척도 아니고 오래된 친구도 아니며 청자에게 빚진 것도 아니라는 뜻을 나타내므로 세 개의 선택항 ‘是親戚’, ‘是老朋友’와 ‘是我欠你的’ 모두를 부정하지만, 예문(16)은 다섯 개의 선택항 ‘她欺行霸市’, ‘危害四鄰’, ‘偷鷄摸狗’, ‘貪污盜竊’ 및 ‘殺人放火’ 모두를 부정한다는 것이다.

## 2) 선행절 부정

선택의문형 반어문은 부분 부정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먼저 선행절을 부정하는 경우를 보자.

- (3) 娘子, 你撒手我! 你是攙我, 還是揪我呢?  
 (색시, 나 좀 나줘요! 당신 나를 부축하는 거요? 아니면 나를 잡아뜯는 거요?)
- (9) 他氣得把講臺猛地一拍, 冲着我怒吼起來: “罗世凱! 你要幹甚麼? 究竟是你講課, 還是我講課課?”  
 (그는 화가 나서 강의테이블을 세게 내려치면서 나를 향해 울부짖었다. ‘뒤쓰카이, 너 뭐하는 거야? 도대체 내가 강의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강의하는 거야?’)

예문(3)은 나를 부축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잡아 뜯는다는 뜻을 나타내므로 선행절인 ‘攙我’를 부정하고, 예문(9)는 네가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의를 하는 것이라는 뜻을 나타내므로 선행절인 ‘你講課’를 부정한다.

## 3) 후행절 부정

선택의문형 반어문은 선행절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음과 같이 후행절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다.

(10) 坐下來談談吧! 你們是要命呢? 還是要現大洋?

(앉아서 얘기하세요! 당신들은 목숨을 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은화를 원하는 건가요?)

(18) “你是我的兒子, 還是他的兒子?” 爸的臉沈下來了。

(‘넌 내 아들이니 아니면 그 사람 아들이니?’ 아빠의 얼굴이 굳어졌다.)

예문(10)은 당신들은 목숨을 원하는 것이지 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앉아서 천천히 얘기하라는 뜻을 나타내므로 후행절인 ‘現大洋’을 부정하고, 예문(18)은 넌 내 아들이지 그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는 뜻을 나타내므로 역시 후행절인 ‘是他的兒子’를 부정한다.

이와 같이 선택의문형 반어문의 표현 의미는 ‘부정’이나 문장에 따라 부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선행절을 부정하여 부분 부정을 나타내거나 후행절을 부정하여 부분 부정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선·후행절을 부정하여 전체 부정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2 선택의문형 반어문의 발화 의미

제바스티안 뢰브너(Sebastian Löbner, 2002)는 발화 의미는 표현 의미를 가진 문장을 구체적인 문맥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해석할 때 실현되며 표현 의미로부터 도출된다고 하였다.<sup>8)</sup> 본고는 선택의문형 반어문이 비록 ‘부정’이라는 표현 의미를 나타내고 있지만, ‘부정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서술문 형식을 취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의문문 형식을 취하는 데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 즉, 선택의문형 반어문이 ‘부정 의미’를 나타내고자 의

8) 임지룡·김동환 역(2010:11) 참조.

문문 형식을 취했다는 것은 의문문 형식을 취하는 경우, 서술문에 비해 부정 의미를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선택의문형 반어문의 발화 의미를 ‘강조 의미’로 상정하고자 한다.

선택의문형 반어문의 발화 의미 분석은 서술문과의 비교가 불가피하므로 본 장에서는 서술문과의 비교를 통해 선택의문형 반어문이 구체적인 발화 문맥에서 나타내는 발화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다음 예문을 보자.

- (5) 爲了賺錢, 這些年是我買衣服了, 還是買化粧品了?  
(돈을 벌기 위해, 이 몇 년 동안 제가 옷을 샀나요? 아니면化粧품을 샀나요?)
- (5)' 爲了賺錢, 這些年我沒買衣服, 也買化粧品。  
(돈을 벌기 위해 이 몇 년 동안 저는 옷도 사지 않았고,化粧품도 사지 않았어요.)

예문(5)는 돈을 벌기 위해 요 몇 년 동안 옷도 사지 않았고化粧품도 사지 않았다는 뜻을 나타내므로 선행절과 후행절 모두를 부정하는 선택의문형 반어문으로 전체 부정형에 속한다. 반어문 형식을 취한 예문(5)를 서술문 형식을 취한 예문(5)'와 비교해보면, 서술문 형식을 취한 예문(5)'는 화자의 주관성이 없고 옷과化粧품을 사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반면, 반어문 형식을 취한 예문(5)는 반어라는 어기를 통해 구체적으로 나열한 예시인 선택항을 모두 부정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나열한 예시를 모두 부정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선택의문형 반어문인 예문(5)는 서술문인 예문(5)'에 비해, 옷과化粧품뿐만 아니라 아무 것도 사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므로, 화자의 주관적 의도가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강조 의미’는 선택항이 여러 개인 경우 더욱 뚜렷하다.

- (16) 我跟你親戚? 是老朋友? 還是我欠你的?  
(저와 당신은 친척인가요? 오래된 친구인가요? 아니면 제가 당신에게 빚이

라도 졌나요?)

- (16) 我跟你既不是親戚, 也不是老朋友, 而且我也沒欠你。  
(저와 당신은 친척도 아니고 오래된 친구도 아니며 게다가 저는 당신에게 빚도 지지 않았어요.)
- (17) 說甚麼? 她欺行霸市了? 危害四鄰了? 偷鷄摸狗了? 貪污盜竊了? 殺人放火了? 沒有!  
(뭐라는 거예요? 그녀가 동업자들을 억압하고 시장을 독점하였어요? 주변에 손해를 끼쳤어요? 줌도둑질을 했어요? 횡령하고 절도행각을 벌였나요? 살인을 하고 방화를 했나요? 아니잖아요!)
- (17') 說甚麼? 她既沒有欺行霸市、沒有危害四鄰, 也沒有偷鷄摸狗, 而且沒有貪污盜竊, 更沒有殺人放火。  
(뭐라고 하는 거야? 그녀는 동업자들을 억압하거나 시장을 독점하지 않았고, 주변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으며 줌도둑질도 하지 않았어요. 횡령하고 절도행각을 벌이더라도 않았고 살인을 하고 방화를 한 적은 더욱 없어요.)

예문(16)은 전체 부정을 나타내는 선택의문형 반어문으로 제시된 세 개의 선택항을 모두 부정하는 경우인데, 이를 서술문 형식을 취한 예문(16)'와 비교해 보면, 예문(16)'는 나열된 세 개의 선택항만을 객관적으로 부정하지만, 반어문 형식을 취한 예문(16)은 나열된 세 개의 선택항뿐만 아니라 나열되지 않은 것까지 부정하고 있음을 주관적으로 강조한다. 따라서 다섯 개의 선택항을 부정하는 경우, 반어문의 형식을 취한 예문(17)의 경우, 발화 의미인 '강조 의미'를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서술문에는 정도가 심해지는 부사와 접속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밖에 '究竟'과 같이 따지는 듯한 어기를 나타내는 어기부사가 출현하는 선택의문형 반어문도 어기부사의 출현으로 '강조'의 발화 의미가 더 부각된다. 특히, 반어문 표지가 들어간 유표지형 선택의문형 반어문의 발화 의미는 반어문 표지의 출현으로 '강조 의미'가 더욱 부각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9) 他氣得把講臺猛地一拍, 沖着我怒吼起來: “罗世凱! 你要幹甚麼? 究竟 是你講課, 還是我講課課?”

(그는 화가 나서 강의테이블을 세계 내려치면서 나를 향해 울부짖었다. ‘뽀 쓰카이, 너 뭐하는 거야? 도대체 내가 강의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강의하는 거야?’)

(9) 他氣得把講臺猛地一拍, 衝着我怒吼起來: “羅世凱! 你要幹甚麼? 不是你講課, 而是我講課課。”

(그는 화가 나서 강의테이블을 세계 내려치면서 나를 향해 울부짖었다. ‘뽀 쓰카이, 너 뭐하는 거야? 내가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의하는 거야.’)

선택의문형 반어문의 형식을 취한 예문(9) 같은 경우, 반어문의 형식을 통해 내가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의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여기 부사 ‘究竟’을 사용함으로써 따져 묻는 듯한 어기가 추가되어 부정 의미에 대한 강조가 더욱 부각된다. 반면, 서술문 형식을 취한 예문(9)는 강의를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나라는 객관적인 사실만 전달된다. 따라서 예문(9)는 비록 선행하는 문장 ‘羅世凱! 你要幹甚麼?’가 있어 강조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선택의문형 반어문 형식을 취하고 여기 부사 ‘究竟’까지 사용한 예문(9)에 비해 강의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나라는 것을 강조함에 있어서는 그 정도가 훨씬 미약하다.

이 절에서의 분석을 통해, 선택의문형 반어문이 구체적인 발화 맥락에서는 서술문에 비해 발화 의미인 ‘강조 의미’가 추가되어 화자의 주관성이 부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3 선택의문형 반어문의 의사소통적 의미

제바스티안 뢰브너(Sebastian Löbner, 2002)는 ‘의사소통적 의미’를 “주어진 사회적 배경에서 의사소통의 행위로서 나타내는 의미”<sup>9)</sup>라고 정의하고 있다. 본고는 제바스티안 뢰브너(Sebastian Löbner, 2002)의 이러한 정의에 근거해 의사소통적 의미는 의사소통의 행위로서 한 문장이 나타내는 발화 의도

9) 임지룡·김동환 역(2010:17) 참조.

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화자는 발화를 통해 무엇을 의도하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선택의문형 반어문의 의사소통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정희자(2004)와 이범열(2012)은 화행이론에 입각해 화행으로서의 반어를 고찰하여 영어 반어문과 중국어 반어문은 단언적 화행, 지시적 화행, 평결적 화행, 언약적 화행, 표현적 화행을 나타낸다고 분석했다.<sup>10)</sup> 비록 이들의 연구가 제바스티안 뢰브너(Sebastian Löbner, 2002)의 의사소통적 의미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본고는 화행이론을 선택의문형 반어문의 의사소통적 의미 분석에 적용하기에는 화행이론의 평결적 화행과 표현적 화행을 분류할 경우 그 경계가 불분명하고, 중국어 선택의문형 반어문의 특성상 언약적 화행과 같은 유형은 선택의문형 반어문에서는 출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밖에도 화용론적 측면에서 반어문의 의미를 분석한 학자들도 있으나 그 분류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sup>11)</sup> 본고는 선택의문형 반어문은 그 통사상 특징으로 인해, 하나의 화용 의미만으로 선택의문형 반어문의 의미를 나타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는 제바스티안 뢰브너(Sebastian Löbner, 2002)에 근거해 선택의문형 반어문을 통한 화자의 발화 의도를 분석한 결과 화자는 선택의문형 반어문 발화를 통해 주로 간접적으로 자신의 감정색채를 표현하거나 간접적으로 청자에게 특정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어떤 상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자 하였다. 물론, 단순 감정색채를 표현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감정색채 표현을 통해 청자에게 특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본고는 선택의문형 반어문의 의사소통적 의미를 감정 표현, 행동 지시, 입장 표명<sup>12)</sup>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10) 화행이론에 입각한 영어 반어문과 중국어 반어문에 대한 연구는 정희자(2002)와 이범열(2012)를 참조하기 바란다.

11) 劉姪琮(2004)은 반어문이 나타내는 의미를 먼저 크게 理性義(命題義)와 附加義(色彩義)로 구분하고 '附加義(色彩義)'는 다시 提醒義, 評價義, 強調義로 구분하여 설명했다. 반면 邵敬敏(1996)은 반어문 화용의미를 困惑義, 申辯, 責怪義, 反駁義, 催促義, 提醒義로 나누었다.

12) 제바스티안 뢰브너(Sebastian Löbner, 2002)는 의사소통적 의미라는 개념만 제시하고

## 1) 감정 표현

선택의문형 반어문을 의사소통의 행위라는 측면에서 그 발화 의도를 분석해보면 질책이나 비난 등 주관적인 자신의 감정적 색채를 표현하고자 하는 발화 의도가 있는 문장들이 많다.

먼저 부분 부정을 나타내는 경우를 보자.

- (18) “你是我的兒子，還是他的兒子?” 爸的臉沈下來了。  
(‘넌 내 아들이니 아니면 그 사람 아들이니?’ 아빠의 얼굴이 굳어졌다.)

위 예문은 후행절을 부정하는 부분 부정의 선택의문형 반어문인데, 의사소통의 행위라는 측면에서 이 문장의 발화 의도를 분석해보면 이 문장은 화자의 아들인데 다른 사람의 아들처럼 행동하는 아들에 대한 아빠의 불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발화 의도는 후행하는 문장 ‘爸的臉沈下來了’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체 부정을 나타내는 경우를 보자.

- (11) 你是說了一聲“對不起”，還是說了聲“包涵”哪? 這就算賠不是了啊?  
(자네 ‘미안하다’고 한마디 했나 아니면 ‘용서해주세요’라고 한마디 했나? 이걸로 사과한 셈 치려고?)

위 예문은 ‘미안하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용서해주세요’라고 말하지도 않았다는 뜻을 나타내므로 전체 부정을 나타내는 경우인데, 이 문장을 의사소통의 행위로서 그 발화 의도를 분석해보면 후행하는 문장 ‘這就算賠不是了啊’를 통해 아무 것도 말하지 않고 사과한 셈 치려는 청자에 대한 비난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문장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선택의문형 반어문은 선택항이 두 개인 경우가 대부분이

---

하위 분류를 제시하지 않은 관계로, 본고는 본고의 의미 분석을 바탕으로 선택의문형 반어문의 의사소통적 의미를 분류하였다.

지만, 선택항이 그 이상인 경우도 있었다. 선택항이 두 개 이상인 경우, 대부분 전체 부정을 나타냈는데, 이런 경우 감정 표현은 더욱 두드러진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6) 我跟你是親戚? 是老朋友? 還是我欠你的?

(저와 당신은 친척인가요? 오래된 친구인가요? 아니면 제가 당신에게 빚이라도 졌나요?)

(17) 說甚麼? 她欺行霸市了? 危害四鄰了? 偷雞摸狗了? 貪污盜竊了? 殺人放火了? 沒有!

(뭐라는 거예요? 그녀가 동업자들을 억압하고 시장을 독점하였어요? 주변에 손해를 끼쳤어요? 줌도둑질을 했어요? 횡령하고 절도행각을 벌였나요? 살인을 하고 방화를 했나요? 아니잖아요!)

예문(16)은 세 개의 선택항 ‘是親戚’, ‘是老朋友’와 ‘是我欠你的’ 모두를 부정하는데, 이런 전체 부정을 통해 화자와 청자는 친척도 아니고 오래된 친구도 아니며 청자에게 빚진 것도 아닌데 청자는 왜 그러는가 따지는 경우로 화자의 불만과 비난이 더욱 두드러진다. 예문(17)은 다섯 개의 선택항 ‘她欺行霸市’, ‘危害四鄰’, ‘偷雞摸狗’, ‘貪污盜竊’ 및 ‘殺人放火’ 모두를 부정한다. 따라서 그녀가 동업자들을 억압하고 시장을 독점한 것도 아니고, 주변에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니며, 줌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며, 횡령하고 절도행각을 벌인 것도 아니며, 살인을 하고 방화를 한 것도 아닌데 그녀에 대해 왜 안 좋은 말을 하는가 따지는 경우로 화자가 청자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분석을 통해 선택의문형 반어문 발화를 통해 화자는 주로 불만, 비난 등 부정적인 감정색채를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는 이는 선택의문형 반어문이 선택의문문 형식을 취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본다. 우선 선택의문형 반어문이 전체 부정을 나타내는 경우 나열된 선택항 외의 것들까지 부정하는 기능이 있음을 앞에서 확인하였다. 그리고 선택의문형 반어문이 부분 부정을 나타내는 경우, 두 선택항 중 하나만을 부정하지만 긍정하는 선택항보다 부정하는 선택항이 더 부각되어 인식된다. 다시 말해 선택의문

형 반어문은 기타 반어문과 달리 ‘긍정 의미’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뜻이다.<sup>13)</sup> 이런 이유 때문에 선택의문형 반어문은 감정표현에 있어서 부정적 감정색채를 많이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 2) 행동 지시

일부 선택의문형 반어문은 그 발화 의도가 청자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취하게끔 하려는 것에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3) 娘子, 你撒手我! **你是攙我, 還是揪我呢?**  
(색시, 나 좀 나줘요! 당신 나를 부축하는 거요? 아니면 나를 잡아 뜯는 거요?)

예문(3)은 색시가 부축한다는 것이 화자를 잡아 뜯듯이 아프게 해서 청자인 색시로 하여금 손을 놓게 하려는 의도에서 한 말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직접 색시에게 지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행동 지시’로 간주해야 한다.

위 예문처럼 부분 부정을 나타내는 선택의문형 반어문이 ‘행동 지시’의 의사소통적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 부정을 나타내는 선택의문형 반어문이 ‘행동 지시’의 의사소통적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7) 這筆錢可不是小數目, 你不想交公, **難道你工作幹够了, 還是吃了豹子膽了?**  
(이 돈은 그야말로 작은 액수가 아닌데, 당신이 공공기관에 넘기지 않으려고 하다니, 설마 당신 일에 질린 건가요 아니면 간덩이가 부은 건가요?)

예문(7)은 일에 질린 것도 아니고 간덩이가 부은 것도 아니라는 뜻을 나타

13) 선택의문형 반어문 외의 기타 반어문은 반어문의 표현 형식이 긍정이면 전체 문장은 부정 의미를 나타내고, 표현 형식이 부정이면 전체 문장은 긍정 의미를 나타내는 것에 비해, 선택의문형 반어문은 긍정 의미를 나타내지 못한다.

내므로 전체 부정에 속한다. 화자는 청자로 하여금 그 큰 액수의 돈을 공공기  
 곤에 넘기는 행위를 하게끔 하려는 의도에서 이 문장을 사용한 것이다. 따라  
 서 이 문장의 의사소통적 의미 역시 ‘행동 지시’인 것이다.

### 3) 입장 표명

일부 선택의문형 반어문의 경우 그 발화 의도가 감정 표현을 위한 것도 아  
 니고 청자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단지 어떤 상황에  
 대한 자신의 태도나 입장만을 표명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4) 你這是穿的, 還是啃的?

(당신 그건 입는 것이예요 아니면 물어뜯는 것이예요?)

(15) 究竟是官僚主義、命令主義好, 還是依靠群眾、說服群眾好?

(도대체 관료주의, 명령주의 좋은가요 아니면 군중에 의지하고 군중을 설득  
 하는 것이 좋은가요?)

예문(14)는 당신의 그것이 입는 옷이 아니라 물어뜯는 물건과 같다는 화자  
 의 생각을 전달하려는 의도에서 발화된 문장이며, 예문(15)는 관료주의, 명령  
 주의가 나쁘고 군중에 의지하고 군중을 설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화자  
 의 입장이나 견해를 전달하는 것이 의사소통적 목적이므로 예문(14-15)는 모  
 두 발화 의도가 입장 표명인 선택의문형 반어문이다.

지금까지 이 장에서 선택의문형 반어문이 나타내는 의미를 제바스티안 뢰  
 브너(Sebastian Löbner, 2002)의 의미 층위에 근거해 표현 의미, 발화 의미,  
 의사소통적 의미라는 세 가지 층위에서 분석하였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이는 한 문장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고찰하기 위해 한 문장을 세 개의 층위  
 에서 분석하는 방법론이므로 이 세 가지 의미는 각각 별개의 문장에 존재하  
 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장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하나의 선  
 택의문형 반어문은 그 의미구조를 ‘표현의미+발화 의미+의사소통적 의미’로  
 도식화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다음 예문을 분석해보자.

(3) 娘子, 你撒手我! 你是攬我, 還是揪我呢?

(색시, 나 좀 나줘요! 당신 나를 부축하는 거요? 아니면 나를 잡아 뜯는 거요?)

먼저 표현 의미의 층위에서 예문(3)을 분석해보면, 선택의문형 반어문의 형식을 취한 예문(3)은 나를 부축하는 것이 아니라 잡아 뜯는 것 같다는 뜻을 나타내므로 이 문장은 선행절을 부정하므로 부분 부정에 속한다. 즉, 예문(3)은 주로 ‘부정 의미’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발화 의미의 층위에서 예문(3)을 분석하기 위해 이 문장을 서술문인 ‘娘子, 你撒手我! 你不是攬我, 像是揪我。(색시, 나 좀 나줘요! 나를 부축하는 것이 아니라 잡아 뜯는 것 같아요.)’와 비교해보면 객관적으로 부축하는 것과 꼬집는 것을 구분하지 못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선택의문형 반어문의 형식을 취한 예문(3)은 부축하는 것이 아니라 꼬집는 것 같다는 뜻을 강조한다. 따라서 선택의문형 반어문인 예문(3)의 발화 의미는 ‘강조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적 측면에서 선택의문형 반어문 발화를 통한 화자의 의도를 고찰해보면, 화자는 예문(3)에서 선택의문형 반어문을 통해 색시에게 부축한다는 것이 아니라 잡아 뜯는 것 같이 아프니 좀 놔주라는 뜻을 전달하여 색시가 놓아주는 행위를 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즉, 색시에게 ‘행동 지시’를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화자의 발화 의도는 선행하는 문장 ‘娘子, 你撒手我!’를 통해 더욱 잘 드러난다.

따라서 선택의문형 반어문 예문(3)의 의미를 표현 의미, 발화 의미, 의사소통적 의미라는 세 층위에서 분석하면 이 문장은 ‘부정+강조+행동지시’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 논의를 통해, 하나의 선택의문형 반어문의 의미 구조를 ‘표현의미+발화 의미+의사소통적 의미’로 도식화하면 선택의문형 반어문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선택의문형 반어문의 의미 형성 조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선택의문형 반어문의 의미는 표현 의미, 발화 의미, 의사소통적 의미라는 세 개 층위에서 분석할 수 있다. 본고는 표현 의미는 발화 의미, 의사소통적 의미와 그 형성 조건이 선명하게 다르지만, 발화 의미와 의사소통적 의미는 그 형성 조건이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2가지 나누어 선택의문형 반어문의 형성 조건을 분석하고자 한다.

##### 4.1 선택의문형 표현 의미 형성 조건

선택의문형 반어문이 나타내는 표현 의미는 ‘부정’이며 선택의문형 반어문은 선행절을 부정하거나 후행절을 부정하는 부분 부정을 나타내기도 하고 선행·후행절을 모두 부정하는 전체 부정을 나타내기도 한다. 선택의문형 반어문이 이러한 부정 의미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선택의문문이라는 통사적 조건이 갖추어 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선택의문형 반어문은 표현 형식에 있어서는 선택의문문과 동일하지만 발화 목적에 있어서는 청자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화자의 주관적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형식은 의문문이지만 의미는 부정을 나타내는 서술문이다. 다시 말해 선택의문형 반어문의 부정 의미는 선택의문문이라는 표현 형식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뜻이다. 양영매(2014)의 연구는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선택의문문은 둘 이상의 선택항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묻는 문장이므로 화자가 선택의문문을 사용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청자는 제시된 선택항 중에서 하나를 골라 응답하게 된다. 이는 선택의문형 반어문이 부분 부정을 나타내는 경우를 쉽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선택의문형 반어문이 전체 부정을 나타내는 경우는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명하기도 쉽지가 않다. 양영매(2014)에서는 이 경우도 선택의문문이라는 통사적 형

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음은 그가 제시한 예문이다.

(19) 服務員：您是要這件紅色連衣裙，還是要這件白色長裙？

(종업원: 손님, 이 빨간색 원피스를 드릴까요, 아니면 이 흰색 긴 치마를 드릴까요?)

顧客：那兩件都不錯，我都要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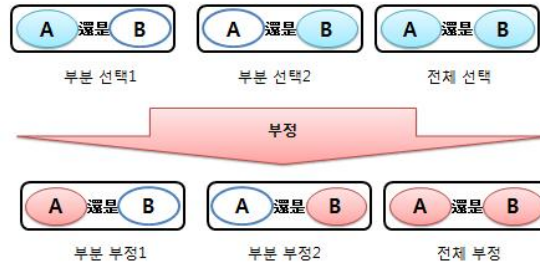
(고객: 그 2벌 다 괜찮은데 다 주세요.)

이 대화는 옷을 구입할 목적으로 백화점에서 옷 몇 벌을 입어본 고객에게 종업원이 고객이 비교적 마음에 들어 하는 옷 두 벌을 들고 어느 것을 살 것인지 묻는 경우인데, 종업원은 고객들이 일반적으로 한 벌을 구입한다는 상황을 고려해 선택항을 두 개 제시하고 고객이 두 개의 선택항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것이라는 예측 하에 선택의문문의 형식으로 고객의 의사를 물었으나 이 손님의 경우 제시된 선택항을 모두 선택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선택의문문을 사용해 질문을 할 경우, 대부분 사람들은 제시된 선택항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데 이런 경우 제시된 선택항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것이므로 부분 선택이 되고, 일부 특수 상황에서는 예문(19)처럼 소수 사람들은 두 개의 선택항을 모두 선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전체 선택이 되는 것이다.

양영매(2014)는 선택의문형 반어문이 선행절 부정, 후행절 부정, 전체 부정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선택의문문이 선행절 선택, 후행절 선택, 전체 선택을 허용하여 그 개연성을 열어놓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나아가서 선택의문문과 선택의문형 반어문의 상관관계를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나타냈다.

본고는 위 그림이 선택의문문과 선택의문형 반어문의 상관관계를 잘 보여 주며 선택의문형 반어문이 표현 의미인 ‘부정 의미’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그림1> 선택의문문과 선택의문형 반어문의 상관성

선택의문문이라는 통사적 조건이 갖추어 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 4.2 선택의문형 기타 의미 형성 조건

선택의문형 반어문에서 표현 의미인 '부정 의미'는 통사적 조건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선택의문형 반어문의 발화 의미와 의사소통적 의미는 문맥 의존성과 상황 의존성이 매우 강하다.

먼저 다음 예문을 보자.

- (3)娘子,你撒手我!你是攙我,還是揪我呢?  
 (색시, 나 좀 나줘요! 당신 나를 부축하는 거요? 아니면 나를 잡아뜯는 거요?)

3장에서의 분석을 통해 예문(3)은 선행절을 부정하는 경우로, 이 문장의 발화 의미는 '강조 의미'이고 의사소통적 의미는 '행동 지시'임을 고찰하였다. 이는 선행하는 문장 '娘子,你撒手我!'가 있었기에 더욱 용이했던 것으로, 이 문장에서 발화 의미, 특히 의사소통적 의미는 선행절이라는 문맥에 많이 의존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예문은 또 다른 경우를 보여준다.

- (18) “你是我的兒子, 還是他的兒子?” 爸的臉沈下來了。  
 (‘넌 내 아들이니 아니면 그 사람 아들이니?’ 아빠의 얼굴이 굳어졌다.)

예문(18)의 후행절을 부정하는 경우인데, 이 문장의 발화 의미는 ‘강조’이며, 의사소통적 의미는 불만과 비난이라는 감정을 표현한 ‘감정 표현’이다. 예문(18)에 이 문장이 반어문이라는 아무런 표지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발화 의미와 의사 소통 의미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아들은 누구나 알아본다는 것이 상식에 의존한 것이다.

그밖에 2장의 선택의문형 반어문의 인식 조건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선택의문형 반어문의 발화 의미와 의사소통적 의미는 맥락 외에도 상황, 사회적 도덕, 일반적인 상식 등에 의존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 5. 결론

본고의 연구 목적은 선택의문형 반어문에 대한 의미론적 접근을 통해 선택의문형 반어문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도식화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먼저 선택의문형 반어문의 인식 조건을 살펴보고 이어서 선택의문형 반어문의 의미 구조를 분석했으며 마지막으로 선택의문형 반어문의 의미 형성 조건을 분석하였다.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선택의문형 반어문의 인식 조건 분석을 통해 선택의문형 반어문의 인식조건은 표지의 유무에 따라 유표지형과 무표지형으로 나눌 수 있었고 유표지형은 다시 직접 표지와 간접 표지로 나눌 수 있었다. 반면, 무표지형에는 상황, 사회적 도덕, 일반적인 상식 등이 고찰되었다.

둘째, 선택의문형 반어문의 의미 구조 분석에서는 제바스티안 뢰브너(Sebastian Löhnner, 2002)의 의미론 층위에 관한 이론에 근거하여 선택의문형 반어문의 의미를 표현 의미, 발화 의미, 의사소통적 의미라는 세 가지 층

면에서 분석하였다. 그중 표현 의미는 ‘부정’이나, 발화 의미는 ‘강조’이며, 의사소통적 의미는 ‘감정 표현’, ‘행동 지시’, ‘입장 표명’으로 나눌 수 있었다. 그리고 선택의문형 반어문의 의미구조는 ‘부정 의미+강조 의미+감정 표현/행동 지시/ 입장 표명’로 도식화한다.

셋째, 선택의문형 반어문의 의미 형성 조건을 분석을 통해, 선택의문형 반어문의 표현 의미인 ‘부정 의미’는 선택의문문이라는 통사적 형식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선택의문형 반어문의 ‘부정 의미’는 선택의문문이라는 통사적 조건을 의미 형성 조건으로 삼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선택의문형 반어문의 발화 의미, 의사소통적 의미는 주로 맥락, 상황, 사회적 도덕, 일반적인 상식 등을 의미 형성 조건으로 삼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 參考文獻

- 郭繼懋(1997), <反問句的語義語用特點>, 『中國語文』第2期
- 金秀珍(2006), <疑問表現における反語文の一考察-日・韓對照を中心に>, 『日語日文學研究』第57輯, 59-77.
- 邓守信(2002), <現代漢語的否定>, 南開大學語言學刊 第1期, 91-102.
- 리&툼슨(Li, Charles. N. & Thompson, Sandra. A, 1981), Mandarin Chinese: A Functional Reference Grammar, 박정구·박종한·백은희·오문의·최영하 역([1989]1999), 『표준중국어 문법』, 서울: 한울 아카데미.
- 范曉·張豫峰(2003), 『語法理論綱要』, 上海: 上海譯文出版社
- 徐傑·李英哲(1993), <焦點和兩個非線性語法範疇:“否定”“疑問”>, 『中国語文』第2期, 81-92.
- 邵敬敏(1994), <現代漢選擇問研究>, 『語言教學與研究』第2期, 49-67
- 邵敬敏(1996), 『現代漢語疑問句研究』,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 孙汝建(2004), <句子的否定與句子的局部否定>, 南通師範學院學報 第20卷 第2期, 77-80.
- 沈家煊(1993), <“語用否定”考察>, 『中国語文』第5期, 321-331.
- 양영매(2014), <현대 중국어 선택의문형 반어문의 부정의미 연구>, 『中國言語研究』第53輯, 157-178.
- 黎錦熙([1992]2001), 『新著國語文法』, 北京:商務印書館.
- 呂叔湘([1942]1982), 『中國文法要略』, 臺北:文史哲出版社
- 呂叔湘(1985), <疑問·否定·肯定>, 『中國語文』第4期, 241-250.
- 王菊平(2007), <現代漢語反問句研究>, 南京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 王力([1943]2000), 『中國現代語法』, 北京:商務印書館
- 于根元(1984), <反問句的性質和作用>, 『中国語文』第6期, 419-425.
- 于天昱(2007), <現代漢語反問句研究>, 中央民族大學 博士學位論文
- 袁毓林(2000), <論否定句的焦點、預設和轄域歧義>, 『中国語文』第2期, 99-108.
- 熊仲儒(2005), <否定焦點及其句法蘊含>, 『中国語文』第4期, 300-307.

- 刘松江(1993), <反问句的交际作用>, 『语言教学与研究』第2期, 46-49.
- 유선영(2006), <반어문의 의미, 화용상의 이해>, 『中國語文學論集』第74號, 81-106.
- 劉月華·潘文娛·故韡([2001]2003), 김현철 등 역(2005a), 『實用現代漢語語法』, 서울: 송산출판사
- 刘钦荣(1995), <反问句和询问句句法结构间的关系>, 『沈阳师范学院学报(社会科学版)』第4號, 85-88.
- 殷樹林(2006), <現代漢語反問句研究>, 福建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 이범열(2012), 『현대중국어의 담화화용론』, 서울: 한국문화사.
- 李彦凤(2007), <否定焦點考察>, 『语文学刊』第5期, 131-133.
- 李宇明(1990), <反问句的構成及其理解>, 『殷都学刊』第3期
- 張曉濤(2011), 『疑問和否定的相通性及構式整合研究』, 北京: 中國社科學出版社
- 丁聲樹([1961]2009), 『現代漢語語法講話』, 北京: 商務印書館.
- 정희자(2004), <반어에 대한 화행적 고찰>, 『새한영어영문학』 제46권3호, 289-311.
- 제바스티안 뢰브너(Sebastian Löhnner, 2002), 임지룡·김동환 역(2010), 『의미론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 陳昌來(1993), <從“有疑而問”到“無疑而問”—疑問句語法手段淺探>, 『煙台師範學院學報』第1期
- 湯廷池(1981), <國語疑問句的研究>, 『臺灣師大學報』第26卷, 219-277
- 胡建华(2007), <否定、焦點与辖域>, 『中国语文』第2期, 99-112.

Abstract

A Meaning Study on Rhetorical question of Alternative questions Type in  
Modern Chinese

Yang, Young-mae

The research aims to analyze and formulate meanings of rhetorical question of alternative questions through the sematic approach. For this purpose, the paper addresses the recognition conditions of rhetorical question of alternative questions and then, analyzes their meaning structures, and finally, reviews the meaning formation condition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rough analyzing the recognition conditions of rhetorical question of alternative questions, the conditions can be divided into marked types and unmarked ones depending on markedness; marked types also can be classified into direct and indirect markedness. On the other hand, in unmarked types, situational, social morals, general common senses are considered.

Second, in semantic structure analysis, based on semantic hierarchy theory proposed by Sebastian Löbner, 2002, the meaning of rhetorical question of alternative questions was analyzed in three ways: expressive meaning, utterance meaning, and communicative one. Additively, its formative structure is expressive plus utterance plus communicative meaning.

Third, by analyzing meaning formation condition of rhetorical question of alternative questions, 'negative meaning' of rhetorical question of alternative questions, an expressive meaning, was derived from syntactic form of alternative questions, thus the 'negative meaning' takes syntactic form of alternative questions as the meaning formation prerequisite. Meanwhile, the others, the conditions of utterance and communicative meanings are mainly context, morality, common sense, etc.

Key words : rhetorical question of alternative questions, recognition conditions, semantic structure, meaning formation conditions, semantics hierarchy, expressive meaning, utterance meaning, communicative meaning

투 고 일 : 2016. 9. 10. / 심 사 일 : 2016. 9. 15. ~ 2016. 10. 15. / 게재확정일 : 2016. 10. 16.